

**BLACK COMEDY**

## 격려사



총장 : 강 신명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 세대에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글로서 표현된 예술의 하나가 감정과 느낌을 솔직한 동작으로 나타내는 작업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 숭대극회는 오랜 경험을 쌓아왔고 그 탐구적인 연기는 대학생활의 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면예술을 공간예술로 소화시키는 작업은 참석자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 진가를 다향수 있습니다. 봄의 상징이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오랜 침묵 속에 각자가 가진 최대한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맡겨진 위치에서 다하려고 노력할 때 만물은 조화된 아름다움을 생동감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부르게 제철을 모르고 성급히 피었던 개나리는 꽃샘추위와 때늦게 내린 눈속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들어 갔습니다. 진정 때를 알기까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잘 닦여진 속에 신입생을 맞는 우리 숭대극회는 바쁜 시간 있지만 피터 쉐퍼作 "BLACK COMEDY"로서 또 한번 창작세계의 생동감을 보여주는데 심혈을 다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된 만큼 잘 표현된 자리이기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에 맞춰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이며 영광 돌리는 흡족한 계기가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 모시는 글



극회장 서태형

숭대극회는 1921년 "절세 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라는 소인극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대학연극의 선구자로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연극 정신은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연극이 한낱 일상상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진실된 고통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번 작품이 오를 수 있도록 힘써준 모든 분들에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Cast

### 연출의 변



연출 홍여석

피터 셰퍼의 “Black Comedy”는 단지 상상의 세계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작품이다.

Black의 의미를 어떻게 극 전체에 용해 시키느냐 하는 것이 처음부터의 문제였다.

소극(farce)의 정의는 사람을 웃게 하는 연극이다. “Black Comedy”的 Black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완전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다.

어떠한 Trick의 사용없이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도 소극적인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극이라고 하는 허구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극은 공연의 형식으로 제시됨으로써 그 허구의 세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조연출 이영구



브린즈리 박경근



캐롤 류성희



퍼니벌 이미숙



멜케트대령 한만용



해롤드 백윤현



클레아 정연희



슈판찌히 김문곤



햄버거 이재영



# 공연연보

回	年 識	作 品 名	演 出	回	年 識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홍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를래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날"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애인" 이강택 作(신입생환영)	김득남
	1923년 7 : 7, 3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후" "기계인간" 엘랫팅턴회 주관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탈리 作	김득남
	1923년 7 : 28, 29	"소년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6	1976년 10 : 25, 26, 27, 28	"햄" 장·클로드·반·이탈리 作	김영덕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e Wilder	이태주	3	1977 3 : 16, 17, 18	"출발" 윤대성 作(신입생환영)	안홍순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 作	이태주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쉬퍼 作 백정식 기획	김영덕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18	1977년 10 : 10, III, 12, 13	"EQUUS" 피터·쉬퍼 作 방영철 기획	김영덕
5	1970년 5 : 15	"聖者 의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제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방영철 기획	김영덕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뮤엘·베케트 作	김양기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쉬퍼 作 민승기 기획	김영덕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년복 살화" 윤형조 作 "달배해독에 황해서" 안톤·체홉 作 "황금단지" (로마극) 푸리우터스 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뮤엘·베케트 作	장종화 주정서 한영제 윤근배 차현재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택 作(신입생 환영) 한천 기획	정재호
浦劇祭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정재호 기획	이병국
8	1971년 11 : 4, 5, 11	"자객 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作	차현재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대석 作 이정일 기획	황정순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펜더 作	한영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범 기획	박양현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고봉인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이영환 기획	오세환
11	1973년 10 : 25, 26, 27	"왕" H. 펜더 作 "기도" (소극장) F. 바라벨 作	차현재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 作 이종규 기획	황정순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도막) A. 까워 作	정종화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중 作 전석근 기획	황정순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둥" W. Arving 作(신입생환영)	김홍수	26	1982년 3 : 24, 25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作 최시영 기획	이용섭
13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27	1982년 6 : 12, 13	까까리클라 作 A. 까워 음대용 기획	지숙
14	1975년 10 : 29, 30, 31	"비디만과 방화범" 범 Max. Frisch	안홍순	28	1982년 10 : 7, 8	쉐도우박스 作 M·크리스토퍼 천희식 기획	황정순